

“밝고 사랑스런 아이...” 유족·조문객 눈물바다

‘묻지마 살인’에 숨진 여고생 장례식장

지인·교사·동창 등 추모...“너무 안타까워”
터져나온 눈물에 말 잊지 못한 채 애도
피습 현장에도 시민 등 헌화...오늘 발인

“너무나도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는데.....”
6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장례식장. 어린이날인 전날 심야 시간에 이른 바 ‘묻지마 살인’에 의해 숨진 고등학교 2학년 A(17)양을 안타까워하며 추모하는 행렬이 잇따랐다.

A양은 전날 오후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귀가하던 중 광산구 월계동 대로변 인도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 그를 도우려던 B(17)군도 범인의 흉기에 다쳤다.

이날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던 가족과 지인들은 모두 말을 잊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A양의 어머니는 “우리 딸 어떡해”라며 연신 눈물을 쏟아내다 가슴을 두드리기도 했다.

아버지와 중학생 남동생은 고개를 꼭 숙인 채 조문객들을 맞았다.

A양의 이모는 “아이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현장이라도 가보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차마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렸다.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심야 시간에 일면식도 없는 20대가 휘두른 흉기에 여고생과 남고생이 찔려 숨지거나 다친 광주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자도로에 6일 국화가 놓여 있다. /조영권 기자

조문객들도 장례식장 로비 화면에 있는 A양의 사진을 보자 곧바로 낯빛이 어두워졌다. 일부 지인들은 터져나온 눈물을 어찌지 못한 채 빈소로 향했다.

이들은 A양에 대해 “참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

였다”고 입을 모았다.

A양이 다녔던 학원의 국어 선생님은 “응급구조사를 꿈꾸며 시험이 끝난 후에도 성실하게 수업을 들던 착실한 모범생”이었다며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끝을 흐렸다.

전날에 이어 다른 조문객들과 함께 방문했다는 A양 어머니의 지인은 “A양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랐다. 말썽 한번 안 부리던 착한 아이였다”며 “안타깝고 슬프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A양이 졸업한 중학교 동창생들도 참담한 마음으로 빈소를 찾았다.

이재문(18)군은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늘 모범이 됐던 친구였다”며 “중학교 때 정말 친하게 지냈었기에 소식을 듣자마자 학교 조퇴를 하고 왔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에도 A양을 기리는 발길이 이어졌다.

해당 장소에는 피자국을 가리기 위해 뿌린 것으로 보이는 모래와 흙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인도 옆 나무 아래 누군가 두고 간 흰 국화꽃 다발은 바람에 흔들렸다.

도심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지나는 이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꽃다발 앞에 멈춰선 시민들은 고개를 숙이며 A양의 넋을 기렸다.

황모(47)씨는 국화꽃 다발이 놓인 나무 아래에 탄산음료 한 캔을 줬다. 황씨는 “우리 아이도 근처에서 학교에 다녔던 터라 남 일 같지 않았다”며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료를 물어보고 준비해 왔다”고 전했다.

월계동 주민 정동환(30대)씨는 “도심에서 어린 학생이 이유 없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소원했다.

한편 A양의 발인은 7일 오전 8시에 엄수될 예정이다. /윤찬용·서형우 기자

광주경찰, ‘묻지마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주중 위원회 개최...결정엔 지역 첫 사례
오늘 구속 심사...이후 사이코패스 검사

심야 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을 다치게 한 20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24)씨의 구체적인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할 심의위원회를 이번 주 내에 열기로 했다.

위원회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열리며, 해당 법에선 중대한 피해, 수단의 잔인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을 요건으로 두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요건을 우선 충족하는 것으로 보며 1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은 총경 이상 내부 인사와

법률가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구성 시 외부 인사가 내부보다 1명 이상 많아 야해 경찰은 기존에 위촉한 인력풀 중에서 참여가 가능한 이들을 선별하고 있다.

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 여부는 A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광주경찰청의 서장이 내린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A씨는 관련 법률이 시행된 2024년 이후 광주 지역 첫 사례가 된다.

이와 별도로 광주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중 열릴 전망이다.

범행 경위와 동기 파악을 위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A씨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한 경찰은 실제 범행에 사용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A씨는 사건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별다른 정신 질환 이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거 당시 A씨가 소지하던 가방에서 포장도 뜯지 않은 또 다른 흉기가 발견되는 등 우발적 범죄로만 여기기 어려운 정황도 있어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 파악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경찰청 과학수사대는 A씨에 대한 영상실질심사가 끝난 후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검사는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A씨의 성향을 객관적인 척도를 이용해 분석하기 위함이다.

한편 A씨는 전날 오전 12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B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고등학생 C군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삶에 재미가 없어’ 홀로 생을 마감하려다 범행을 결심했으며 B양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인재영 기자

市교육청, 고교생 피습 현장에 CCTV 확충 요청

다친 남학생 ‘의사상자 신청’ 안내도

광주시교육청은 6일 고교생 피습 범죄 피해 발생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사고 현장 인근의 통학로 주변에 CCTV 확충을 요청하는 등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건이 발생한 현장은 광산구 첨단고등학교에서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을 거쳐 광주 전자공업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인도로, 학생들이 평소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현장을 확인한 뒤 CCTV 설치를 광산구청에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숨진 A(17)양과 크게 다친 B(17)군이 재학 중인 학교 학생·교원·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긴급대응팀을 가동해 상담과 심리치료를 제공한다.

시교육청은 A양을 돕기 위해 다친 B군에 대한 의사상자 신청도 안내할 예정이다. 의사상자는 위해(危害)에 처한 타인을 구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다가 사망

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 보호 대상이 된다.

더불어 시교육청은 자랑스러운 광주 학생 표창 수여도 검토 중에 있다. /박선욱 기자

냉동창고 화재 작업 지시자 구속 송치

소방 대원 2명이 순직한 완도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 당시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예폭시작업을 지시한 시공업체 대표도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실화와 범인도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6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8시5분께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B(30대)씨가 예폭시작업을 하다 불을 낸 것과 관련해 작업 지시자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원도·윤보현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